

서울시, 여성가족복합시설 추진

시설 건립 목적·필요성 검토 7000만원 투입 타당성 조사 권역별 수요·시설 현황 파악

서울시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이라는 성평등 정책의 전담 거점이 될 여성가족복합시설의 건립 목적과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총 7000만원을 투입해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정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성평등 요구 확대, 1인 가구 중심 가족구조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족 돌봄 문제 심화와 같이 여성·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기존 여성·가족지원시설은 여성의 단편적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전통적 가족개념에 근거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합적 지원 공간이 필요하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과업내용은 ▲여성가족시설현황조사 및 분석 ▲시설 기능설계 등 건축물 기본구상 ▲권역별 여성가족복합시설 분포 현황 비교 분석에 따른 적정입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검토 ▲건축 및 운영 기본계획 제시 ▲정책 제안으로 구성됐다.

용역 업체는 우선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한다. 기존 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여성가족복합시설의 개념·목표·기능을 정립한다. 권역별 수요와 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중복 가능성을 배제한 적정 입지를 검토해 우선 사업부지를 제안한다.

시는 각 자치구에서 여성가족시설 건립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별 현황 및 실제 기능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을 요청한 자치구는 광진, 송파, 서초구 등이다. 시는 권역

별 특성과 수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에는 여성가족복합시설의 개요와 운영 형태(직영, 법인, 위탁), 조직 및 인력, 시설관리, 시민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사업부지에 들어설 건축물 규모와 시설물 배치, 활용방안 등 건축 기본구상과 건립 비용(건축, 설계비), 경제성(B/C)·재무성 분석, 수익창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결론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며 본 연구는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정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 등록 후 가격을 전자로 투찰하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4개월간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방탄소년단이 소개하는 서울의 매력

서울시 홍보영상 공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에 2주 연속 오른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 팬들에게 서울을 소개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1일 서울관광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새로운 홍보영상 '서울에서 만나요(SEE YOU IN SEOUL)'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부터 서울명에 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서울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 왔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번 서울관광 홍보영상 공개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먼저 공개한 멤버별 카운트다운 영상은 벌써 약 2100만뷰와 2만3700여개의 댓글을 기록(9일 오후 3시 기준)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BTS의 서울관광홍보포스터. /서울시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여행 재개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서울관광에 대한 기대감과 인지도를 높여 향후 서울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회복마케팅'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신길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162세대

2022년 10월 준공·입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인근에 162세대 규모의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신길동 173-6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10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신길동 청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짓는다. 지상 1층에 입주 청년들 쉼터인 '푸른뜰

마당'이, 2층에는 세미나실·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생긴다.

주택내부는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빌트인 가전을 풀옵션으로 넣고 모든 세대에 확장형 발코니를 만든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공공임대가 34세대, 민간임대가 128세대다. 서울시는 내년 1월에 착공해 2022년 5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준공·입주하는 일정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김현정 기자

어르신 IoT 비대면 돌봄 서비스 확대

서울시, 이상 상황 감지시 119 출동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하다가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119 구조대가 긴급출동하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서울시 내 1만 가구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확대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건강, 안전, 사회적관계망이 취약한 노인 가구에 IoT 기기를 설치해 일상을 관리하고 위급상황 시 대응하

는 서비스다.

노인 가구에서 감지된 데이터는 각 수행기관과 광역기관의 상황관리 담당 생활지원사 휴대기기로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온도·습도·조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 후 119 신고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증가 추과의 관계 단절, 우울, 고령으로 안전 확인이 실시간으로 필요해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받는 노인이다.

/김현정 기자

'한강대교',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호 선정

보신각 앞 지하철 수문점·옛 통계국 역사 품은 상징적 시설물... 가치 충분

서울시는 한강대교와 보신각 앞 지하철 수문점, 옛 통계국 청사를 각각 시 등록문화재 1~3호로 올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만 운영되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도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자체 등록문화재를 처음으로 선정해 등록한 사례다.

시는 그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근·현대 유산 중 시·자치구 또는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고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난 문화유산을 1차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강대교는 1917년 준공된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교다.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흔적도 남아 있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의 산 증거나 국내 교량기술 발전의 복합적인 상징물로 평가받는다.

수해와 전란으로 옛 모습이 사라지



서울시 등록문화재 1호로 선정된 한강대교. /서울시

고 변형됐지만, 서울의 남북을 잇는 역할을 지속해 역사를 품은 상징적인 다리로서 보존·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등록문화재 2호가 된 '보신각 앞 지하철 수문점'은 1970년대 건설된 서울지하철 1호선 계획의 시발점이다. 1960년대 인구 과밀화와 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겪던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 계획을 세웠고, 그 첫 작업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기준이 될 '수문점'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보신각 앞 잔디 마당에 묻혀 있는 사

방 25cm의 지하철 수문점은 수도권 전철의 높이 및 깊이의 척도가 되는 원점이었다. 종로의 이 수문점을 기준으로 지하철 선로의 깊이와 터널의 높이, 역사(驛舍)의 상하 축 높이가 가능했다.

서울시 등록문화재 3호인 구(舊) 통계국 청사는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건물로, 지금은 '서울노인복지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1세대 건축가인 이희태의 작품으로 해방 이후 한국 현대 건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초기 건축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피의자 심야조사 출석요구 최소화

민사단,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인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심야·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출석요구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준칙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

할 때 대기·휴식과 조서 열람 시간을 합해 하루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실제 조사 시간은 최장 8시간으로 규정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수사관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대면조사가 꼭 필요한지, 전화나 이메일

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해 사건 관계인의 불안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변호인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1 | 해질 / 18:46

9월 11일 (금) 음력 : 7월 24일

수도권 날씨 26~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7/25, 동두천 17/25, 가평 16/25, 파주 17/26, 서울 20/26, 양평 18/26, 수원 20/26, 용인 20/26, 백령도 20/24, 인천 20/26, 평택 18/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